

구겐하임의 '예술', LG의 '기술' 만나 이전에 없던 '창의적 경험' 만든다

- LG, 세계적인 현대미술관 '구겐하임 뮤지엄'과 함께 글로벌 Art&Tech 파트너십 체결

■ 1일, 미국 뉴욕 구겐하임 뮤지엄에서 'LG-구겐하임 글로벌 파트너십(Art&Technology Initiative)' 발표

- 삶의 접점에서 감동을 주는 기술을 추구하는 LG와, 시대와 맞닿은 예술의 발굴에 매진하는 구겐하임 간의 협력
- 구겐하임 뮤지엄과 함께 첨단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첨단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LG 브랜드의 창의적인 이미지 시너지 효과 기대

■ LG, 'LG 구겐하임 어워드(LG Guggenheim Award)' 신설해 2027년까지

매년 기술과 예술의 접점에서 혁신적 작품 활동 펼치는 아티스트 시상

- LG전자, AI/AR·VR/NFT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예술 분야 연구를 지원하고, 신예 아티스트와 올레드 TV 관련 작품을 협업하며 LG 올레드 TV의 프리미엄 위상 제고
- LG디스플레이, 뉴욕의 젊은 예술 후원자 협회인 YCC(Young Collector's Council) 파티 후원하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경험 확산

■ 연간 110 만명 이상 관람객이 찾는 뉴욕 구겐하임 뮤지엄 포함, 북미(미국)-유럽(스페인/이탈리아)-중동(UAE) 등에 거점을 둔 구겐하임 뮤지엄 곳곳에 LG 브랜드 노출

- 전세계 구겐하임 뮤지엄의 티켓, 브로셔, 홈페이지 등에 글로벌 파트너로서 LG 노출
- 기술과 예술을 융합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며 문화예술활동의 저변 확대 기대

■ 나오미 구겐하임 수석 큐레이터, "기술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고, 또 사회가 기술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줄 유망한 아티스트들에게 'LG 구겐하임 파트너십'은 그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

LG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현대미술관 '구겐하임 뮤지엄(Guggenheim Museum)'과 함께 첨단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시작한다.

LG는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구겐하임 뮤지엄에서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구겐하임 뮤지엄을 후원하는 'LG-구겐하임 글로벌 파트너십(Art&Technology Initiative)'을 발표했다.

LG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현대미술 분야의 혁신적인 예술가들을 후원해 글로벌 미술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계

적인 현대미술관 가운데 유일하게 북미(미국 뉴욕)-유럽(스페인 빌바오, 이탈리아 베네치아)-중동(UAE 아부다비) 등 여러 대륙에 거점을 둔 구겐하임 뮤지엄과 협업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LG 브랜드의 창의적인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파트너십은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강조해 오고 있는 LG의 행보와 맞닿아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 구겐하임 뮤지엄의 티켓, 브로셔, 홈페이지 등에 LG 브랜드가 노출된다.

뉴욕 구겐하임 뮤지엄은 미술관으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난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으며 뉴욕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다. 천장을 중심으로 마치 달팽이처럼 나선형으로 연결된 구조로 설계된 외관이 독특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바실리 칸딘스키 컬렉션은 포함해 파블로 피카소, 빈센트 반 고흐, 폴 고갱, 클로드 모네, 에드가 드가 등 방대한 규모의 세계적 작품은 보유하고 있어 연간 11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이곳을 찾는다. 구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기 있는 사진 명소를 지도에 표시하는 사이트 '사이츠맵(Sights Map)'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진이 촬영된 장소가 '뉴욕 구겐하임 뮤지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파트너십은 (주)LG와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3개 회사가 함께 참여한다. (주)LG는 'LG 구겐하임 어워드(LG Guggenheim Award)'를 신설해 매년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예술 작품을 선보이며 혁신적인 작품 활동을 펼치는 아티스트를 선정해 10만 달러를 시상한다. 'LG 구겐하임 어워드'는 솔로몬 R. 구겐하임 재단과 함께 매년 저명한 뮤지엄들의 관장, 큐레이터, 관련 학자 및 예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 위원회가 심사하며, 제1회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자는 내년 봄에 발표된다.

LG전자는 신진 작가 발굴 및 육성 지원에 나선다. 매년 가을 구겐하임과 함께 '올해의 신예 아티스트(Emerging Artist)'를 선정하고, 이들이 올레드 TV를 활용해 작품 활동을 진행하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같은 LG의 앞선 기술력은 환용해 상상과 창조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평가 받는 올레드는 섬세하고 자연스러운 색을 표현해 작가가 의도한 색감과 디테일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슬림한 디자인은 물론 구부리고 돌돌 말거나 투명한 형태도 가능해 단순히 디스플레이 화면에 작품을 띄워 보여주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의 일부가 되는 전시 오브제로도 널리 활용되는 등 많은 아티스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뉴욕 구겐하임 뮤지엄에서 AI, AR/VR, NFT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예술 분야 연구를 지원을 위해 신설되는 큐레이터인 'LG Electronics Assistant Curator'를 후원하게 된다.

LG디스플레이는 뉴욕의 젊은 예술 후원자 협회가 구겐하임 뮤지엄에서 열고 있는 YCC(Young Collector's Council) 파티를 후원하며, 파티 곳곳에서 투명 OLED 등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보이게 된다.

투명 OLED는 LG디스플레이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산 중이다. 기존 유리창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투명도가 높고, 얇고 가벼우며, 선명한 화질을 구현해 글로벌 디지털 아트계로부터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관람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 평가 받으며 활발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LG는 이번 파트너십 발표 행사도 뉴욕 구겐하임 뮤지엄에서 열린 YCC 파티에서 깜짝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날 행사에는 리처드 암스트롱 구겐하임 뮤지엄 관장, 나오미 벅위스 구겐하임 뮤지엄 수석큐레이터, YCC 멤버 등 구겐하임 측 주요 인사, 윤태봉 LG전자 북미지역대표 겸 미국법인장 부사장, 이윤석 LG전자 미국법인 HE담당 상무 등을 포함 4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사장 1층에 마련된 LG디스플레이의 55인치 투명 OLED 9대로 홀로그램을 구현한 대형 포토월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메인 바에서 LG 스탠바이미에 띄워진 메뉴를 통해 'OLED' 이니셜을 본 따 만든 칵테일을 즐기며 83인치 올레드 TV가 설치된 DJ부스 앞에서 공연을 감상했다. 3층에 위치한 LG OLED 라운지에 전시된 LG전자 올레드 TV 제품을 관람하기도 했다.

나오미 벅위스(Naomi Beckwith) 구겐하임 수석 큐레이터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LG와 함께 5년간 협력하며 예술과 기술의 접점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은 지원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기술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고, 또 사회가 기술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 유망한 아티스트들에게 'LG 구겐하임 파트너십'은 그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설희 (주)LG 브랜드 수석전문위원은 "삶의 접점에서 감동을 주는 기술을 추구하는 LG와, 시대와 맞닿은 예술의 발굴에 매진하는 구겐하임은 닮은 점이 많다"며 이번 파트너십의 공감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창의성의 영역에서 LG의 첨단기술이 새로운 경험의 가능성은 열도독 지원하며 '기술'이 '예술'의 표현과 경험을 확장하는 매개체이자 조력자가 되는 데 도움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LG 국내 임직원들은 추첨 등의 방식은 통해 구겐하임 뮤지엄은 무료도 입장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끝)